

동계올림픽 건설부문 경제적 파급효과

2014.9.1.

강원발전연구원 김진기

1. 개최지역 강원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강원도는 남북이 분단된 이후 248km DMZ(Demilitarized Zone)¹⁾ 라인의 58.5%와 314km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접경지역이다. 접경지역은 1990년대 세계적인 동서냉전의 종식 이후 남북평화교류와 동북아평화를 위한 교두보로 재조명되고 있다. 1998년 11월 50년 만에 처음으로 강원도 동해시에서 북한 금강산을 방문하는 관광유람선이 공식적으로 취항하였으며, 2003년에는 고성군에서 접경지역을 직접 버스로 통과하는 육로관광이 시작되었다. 2008년 북한경비병의 대한민국 관광객 살해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10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남한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는 교류성과를 낳았다. 강원도에서 시작된 금강산 관광프로그램은 남북 간에 개성공단 건설, 개성관광 프로그램, 남북간 철도연결 등 남북교류 사업을 진척시킨 모태역할을 하였다.



<Figure Su-01-1> 강원도의 지리적 위치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도시인 평창, 강릉, 정선은 대한민국 중앙 동서축 상에 위치하는데, 이 축은 도시규모에서 강원도 제1의 도시인 원주와 제3의 도시 강릉을 연결하는 축이다. 국토의 동서, 특히 수도 서울과 동해안을 잇는(막는) 높은 산으로서 대관령이 존재하며, 이 산을 공유하는 평창과 강릉이 공유하고 있다.

동계올림픽 주 개최도시인 평창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초의 현대식 시설을 갖춘 용평리조트가 1975년 조성된 이후 겨울스포츠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후 보광휘닉스파크, 알펜시아리조트 등 올림픽 개최시설들이 준공되면서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동계스포츠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

1)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 2km 지점의 비무장 지대로 한반도 서쪽에서 동쪽까지 총 길이는 248km 이고, 이 중에 145km가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음

빙상 종목이 개최되는 강릉은 동해바다 해변에 있는 인구 약 22만명의 관광도시이다. 국가의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강릉단오제”는 유네스코 세계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결작에 2005년 등록된 대표적인 환경·문화·관광 도시이다.

활강 경기가 개최되는 정선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탄 생산지역이었지만, 국가의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모든 석탄광산이 폐광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복합리조트인 강원랜드가 건설되면서 지역이 회생되고 있다.



<Figure Su-01-2>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의 지리적 위치

2013년 기준으로 전세계 인구는 71억 6천명 정도이고, 이 중 아시아에는 43억명 정도가 거주한다. 이 중에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대한민국 주변지역을 포함한 인구는 약 17억 명으로 세계인구의 24% 정도이다. 201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는 51,141,463명으로 전세계에서 27위 정도에 해당한다. 강원도 인구는 1,542,263명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3% 정도를 차지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3개 도시의 인구는 300,457명으로 강원도 인구의 19.5%, 대한민국 전체의 0.6% 정도이다.

대한민국은 인구의 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전체 인구의 49.4%가 밀집되어 있다. 수도권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영동고속도로, 올림픽을 계기로 건설중인 원주~강릉 복선철도, 제2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올림픽 개최기간 동안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개선된 교통 인프라를 통해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올림픽 유산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표-1-1> 지역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강원도	개최도시	평창군	43,634	43,622	43,577	43,627	43,666
		강릉시	217,464	218,503	217,571	217,741	216,806
		정선군	40,708	41,045	40,181	39,915	39,985
		계	301,806	303,170	301,329	301,283	300,457
	춘천시		264,849	269,950	272,805	273,364	274,455
	원주시		307,882	314,678	320,536	323,885	324,837
	강원도		1,512,870	1,529,818	1,536,448	1,538,630	1,542,263
수도권	서울시	10,208,302	10,312,545	10,249,679	10,195,318	10,143,645	
	인천시	2,710,579	2,758,296	2,801,274	2,843,981	2,879,782	
	경기도	11,460,610	11,786,622	11,937,415	12,093,299	12,234,630	
	계	24,379,491	24,857,463	24,988,368	25,132,598	25,258,057	
대한민국			49,773,145	50,515,666	50,734,284	50,948,272	51,141,463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올림픽 개최지가 선정된 2011년도에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2008. 2~2013. 2) 중이었으나 올림픽 준비 및 개최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에 이루어진다(2013. 2~2018. 2). 특히하게 도 올림픽 폐회식이 개최되는 2018년 2월 25일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 된다.

지방정부는 2011년 올림픽 유치를 추진했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4년 선거에서 다시 당선 되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시까지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개최도시 중에서는 강릉시만 기존 시장이 임기를 지속하게 되었고, 평창군과 정선군은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여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게 된다.

2. 강원도 경제²⁾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개최도시인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과 강원도의 고용, 물가, 지역내 총생산 등과 같은 일반적인 경제변수를 다른 지역 혹은 국가 평균과 비교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최근 경제상황을 살펴보았다.

1) 고용 및 물가³⁾

한국의 경제활동인구(Labor force)는 최근 5년(2009~2013년) 동안 평균 인구증가율인 1.22%보다 높은 1.48%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61%인 반면 강원도는 57~59%, 개최도시(평창군, 강릉시, 정선군)의 경우 53~59%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다. 고용률 역시 강원도와 개최도시의 수치가 전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다만 실업률의 경우에는 강원도와 개최도시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1> 고용 및 물가 현황

(단위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경제활동참가율	60.8	61.0	61.1	61.3	61.5
	실업률	3.6	3.7	3.4	3.2	3.1
	고용률	58.6	58.7	59.1	59.4	59.5
강원도	경제활동참가율	59.0	57.6	57.6	58.2	57.3
	실업률	2.0	2.6	2.2	2.5	2.4
	고용률	57.8	56.1	56.4	56.7	55.9
개최도시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경제활동참가율	58.0	53.1	53.4	59.1	58.9
	실업률	2.3	2.4	1.6	0.7	1.4
	고용률	56.7	51.9	52.5	58.7	58.1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이후 개최도시(평창군, 강릉시, 정선군)와 강원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국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부동산 가격은 전국평균에 비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예로 2012년의 경우 아파트 매매지수는 전국은 2.3% 상승한 반면 강원도는 13.0%, 개최도시는 14.5% 상승하였다.⁴⁾

2) 강원발전연구원.2014. OGI연구 중 요약발췌

3) 조창익 교수(한림대), OGI 연구 중 발췌정리

4) 박동준 팀장(한국은행), OGI 연구 중 발췌정리

<표-2-2> 소비자 물가 상승률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2.8	3.0	4.0	2.2	1.3
강원도	1.9	3.0	4.3	2.0	1.1
개최도시 ¹⁾	1.7	2.8	4.1	2.0	1.1

1) 평창군/정선군 통계 부재. 강릉시 통계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결정(2011. 7. 6) 이후 개최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전국평균에 비해 상승폭이 두드러진 이유는 올림픽 개최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및 관련시설 건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 판단된다. 향후 강원도와 개최도시에는 SOC투자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지역의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2-3>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0.5	2.5	6.2	2.3	-1.6
강원도	1.4	2.5	10.2	13.0	-0.4
개최도시 ¹⁾	-1.2	-0.2	8.2	14.5	1.9

1) 평창군/정선군 통계 부재. 강릉시 통계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2) 지역내 총생산과 산업구조

국내 1인당 실질 GRDP 성장률은 2009~2012년 기간 연평균 3.1%이었다. 같은 기간 강원도는 2.2%, 올림픽 개최도시인 평창군은 -1.5%, 강릉시 3%, 정선군은 1%의 성장을 하였다 (올림픽 개최도시 통계는 2009~2011년). 강릉시를 제외하고 강원도 및 평창군, 정선군은 국가평균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였다.

<표-2-4> 1인당 실질 GRDP 성장률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전국	0.29	6.30	2.85	1.43
강원도	-0.96	3.99	2.79	0.89
평창군	-4.10	0.49	-0.85	NA
강릉시	-1.61	5.46	5.30	NA
정선군	-1.95	1.79	3.30	NA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의 지역내 총생산

2009~2012년 기간 국가 전체 산업생산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제조업은 2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와 개최도시의 경우 전체 산업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내외

(강원도, 강릉시) 혹은 5% 미만(평창군, 정선군)에 불과하여 국가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1970년대 이후 국가 산업생산은 제조업이 주도해 왔으며 2009~2012년 기간 중에도 제조업은 평균 6.3% 성장하여 국가 전체 GRDP 성장을 이끌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전후하여 강원도와 개최도시는 낮은 제조업 생산 비중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미래의 성장을 견인할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2-5> 전국 산업생산 구조

(단위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3.0	2.7	2.4	2.5
광업	0.2	0.2	0.2	0.1
제조업	25.6	28.0	29.0	28.9
기초소재형	8.0	8.5	8.5	8.4
가공조립형	15.1	17.0	18.1	18.0
생활관련형	2.5	2.5	2.5	2.5
전기가스증기수도업	2.1	2.1	2.0	2.0
건설업	6.2	5.6	5.1	4.8
도소매업	7.9	7.8	7.8	7.8
운수업	3.9	4.1	4.1	4.2
숙박 및 음식점업	2.0	1.9	1.8	1.7
정보 및 통신업	4.2	4.1	4.1	4.2
금융 및 보험업	6.8	6.6	6.4	6.6
부동산 및 임대업	6.8	6.5	6.4	6.3
사업서비스업	4.2	4.1	4.1	4.2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5.7	5.4	5.4	5.5
교육서비스업	5.3	5.0	4.9	4.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2	3.3	3.3	3.5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1.2	1.1	1.1	1.2
기타서비스업	2.0	1.9	1.9	1.9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의 지역내 총생산

현재 강원도 및 개최도시의 국가 평균대비 낮은 경제성장률은 향후 지역에 대규모 SOC가 투자될 경우 일시적으로 국가평균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기회삼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강원도와 개최도시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렵다.

<표-2-6> 강원도 산업생산 구조

(단위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지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6.8	6.1	5.9	5.9
광업	2.7	2.2	2.3	2.3
제조업	10.4	11.7	12.1	12.2
기초소재형	4.7	4.9	5.1	4.9
가공조립형	2.5	3.8	3.8	4.1
생활관련형	3.2	3.1	3.2	3.2
전기가스증기수도업	2.7	3.0	2.9	2.6
건설업	9.6	8.5	7.7	7.7
도소매업	6.0	6.0	5.6	5.6
운수업	3.5	3.8	4.6	3.9
숙박 및 음식점업	3.3	3.2	3.2	3.2
정보 및 통신업	2.2	2.2	2.2	2.2
금융 및 보험업	4.2	4.2	4.1	4.0
부동산 및 임대업	5.6	5.6	5.6	5.5
사업서비스업	1.9	2.1	2.2	2.2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16.7	16.7	16.7	17.3
교육서비스업	7.2	7.0	7.0	7.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6	3.7	3.7	3.9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3.4	3.3	3.1	3.3
기타서비스업	2.1	2.1	2.0	1.9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의 지역내 총생산

<표-2-7> 개척도시 제조업 생산 비중

(단위 : %)

구분	2009	2010	2011
평창군	4.7	5.6	5.9
강릉시	8.0	12.0	13.2
정선군	4.0	3.5	4.5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의 지역내 총생산3) 관광 ⁵⁾

2012년 기준 전국 관광숙박업 가운데 호텔이 786개, 휴양콘도미니엄이 18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강원도는 호텔 45개소, 휴양콘도미니엄 59개소로 호텔은 전국의 10.8%, 휴양콘도미니엄은 32.8%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특히 내국인이 선호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비율이 높다.

5) 유영심 박사, OGI 연구 중 발췌정리

한편 전국적으로 호텔 평균 숙박일수가 내국인 1.76일, 외국인 2.27일임에 비해 강원도는 내국인 1.61일, 외국인 1.85일로 강원도에 머무는 관광객 평균일수가 내외국인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태이다. 다행히 평균 숙박일수는 2009년 강원도 1.67일, 전국 2.17일이었던 것이 2012년 강원도 1.65일, 전국 1.74일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표-2-8> 호텔 평균 숙박일수

(단위 : 일)

구분	내국인		외국인		전체	
	강원도	전국	강원도	전국	강원도	전국
2009	1.60	1.77	2.17	2.71	1.67	2.17
2010	1.55	1.79	1.83	2.33	1.59	2.02
2011	1.57	1.85	1.97	2.17	1.64	1.99
2012	1.72	1.61	1.41	1.88	1.65	1.74
평균	1.61	1.76	1.85	2.27	1.64	1.98

주 : 호텔업 운영실적 집계대상 업체에 한함

자료 : 전국 관광숙박현황(문화체육관광부, 2009~2012년)

국제행사는 2011년 기준 전국에서 총 1,330회가 개최되었으나 강원도에서는 불과 10개가 개최되는데 그쳤다. 숙박업과 유사하게 강원도의 회의 및 행사 역시 외국인 보다는 내국인이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이벤트인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와 관련하여 강원도 지역에서 국제회의 개최수가 점차 늘어나 지역의 국제화 역량을 성장시키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2-9> 연도별 국제회의 개최수 및 참가자수

구분	행사건수		총참가자수(명)	
	강원도	전국	강원도	전국
2009	6	704	2,990	640,290
2010	5	1,070	3,200	725,251
2011	10	1,330	2,320	786,202

주 : 참가국 3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 10인 이상의 국제행사의 컨벤션, 미팅행사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자료 : 한국관광공사

4) 올림픽 예산과 공공부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예산은 총 2조 540억 원이며 시기별 구조는 대회준비기간인 2014~2017년 사이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8년 흑자를 통해 균형재정을 이루는 것으로 되어있다.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메우고, 2018년 대회개최 시기를 전후하여 발생할 마케팅 수입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마케팅 수입, 특히 국내스폰서십 판매액이 2017년, 2018년 각각 305,979백만원, 308,298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를 실현하는 것이 균형재정에 있어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표-2-10> 조직위원회 예산구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2017년	2018년이후
수입	2,054,000	16,644	33,444	112,173	110,823	258,158	660,536	862,222
지출	2,054,000	16,766	31,759	113,908	158,018	302,367	800,683	630,199
수입-지출		-122	1,685	-1,735	-47,195	-44,209	-140,147	232,023

자료 :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강원도 동계올림픽 추진본부의 지출규모는 현재 강원도 예산대비 1.5% 수준에 불과하고, 개최도시(평창, 강릉, 정선)의 경우 아직 시설관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예산대비 올림픽 지출은 적은 상태이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본격적인 경기장과 도로 등 건설관련 지출이 이루어질 경우 공공예산에서 차지하는 자본적 지출금액 비율이 높아지고 재정부담 역시 커질 전망이다.

<표-2-11> 공공예산 대비 운영비 및 자본적 지출 비율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운영비(백만원)	강원도 동계올림픽 추진본부	6,012	6,263	9,482	20,696	117,037
자본적지출(백만원)	강원도 동계올림픽 추진본부	1,650	0	35	22,520	NA
공공예산(강원도, 순계기준, 백만원)		6,645,805	6,632,511	6,836,910	7,239,106	7,764,621
비율(%)	총지출액(운영비+자본적 지출) /공공예산	0.12	0.09	0.14	0.88	1.5

자료 : 재정고(<http://lofin.mospa.go.kr>), 강원도 동계올림픽 추진본부

3. SOC 건설과 파급효과

1) 강원도 전체: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09)

지난해 정부가 동계올림픽 관련 SOC 투자계획을 승인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정부, 강원도와 개최도시의 투자지출 부담이 커지기 시작할 것이며, 둘째 지역 SOC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의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승인된 계획대로 투자가 진행될 경우 강원도를 비롯한 국가전체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효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단 투자비 가운데 토지 수용비를 차감하여야 하나 현재 이와 관련한 자료가 없어 경제적 파급효과는 토지수용비 부분(20~30% 추정)만큼 과대하게 계산되었다.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277,269억 원이 발생하고 이 중 강원도에서 124,616억 원(44.9%)이 발생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강원도에서 55,536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효과는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195,800명 생겨나고 이 가운데 강원도에서 163,9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4~2017년에 걸쳐 나뉘어 발생할 것이다.

<표-3-1>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SOC 투자 정부승인 계획

구분	사 업 명	사 업 비(억원)						시행부서	비고	
		계	국비	지 방 비			조직위 등			
				소계	도비	시군비				
합 계(3개분야 40개소)		110,430	72,912	2,814	2,193	621	34,704			
경 기 장 건 설	계(13개소)	6,993	5,245	1,748	1,325	423		지자체		
	중봉 알파인	1,095	821	274	274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1,228	921	307	307					
	스노보드	205	154	51	51					
	스피드스케이팅	1,311	983	328	164	164				
	피겨/쇼트트랙	1,361	1,021	340	170	170				
	아이스하키 I (남)	1,079	809	270	270					
	아이스하키 II (여)	620	465	155	78	77				
	컬 링	94	71	23	11	12				
	기존시설 5개소		[알파인회전(용평), 프리스타일(보광),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접 근 도 로 망 화 충	계(21개소)	92,024	67,667	1,066	868	198	23,291			
	광역 간선 교통 (6)	소 계	81,619	58,328				23,291		
		양양국제공항	7					7	한국공항공사	
		원주~강릉복선철도	38,962	38,962					철도시설공단	
		경의선~공항철도	3,100	3,100						
		영동고속도로 임시IC	312	178				134	한국도로공사	
		동홍천~양양고속도로	23,841	12,605				11,236		
		제2영동고속도로	15,397	3,483				11,914	국토교통부	
	보조 간선 (6)	소 계	6,853	6,853					국토교통부	
		국도6호선(4개소)	5,203	5,203						
		국도59호선(2개소)	1,650	1,650						
	경기장 진 입 도 로 (9)	소 계	3,552	2,486	1,066	868	198		지자체	
		지방도 456호	330	231	99	99				
		지방도 408호	562	393	169	169				
		군도 12호	235	165	70	35	35			
		군도 13호	519	363	156	78	78			
		농어촌 205호	335	234	101	51	50			
		농어촌 209호	152	106	46	23	23			
		용평 알파인 진입로	128	90	38	38				
		진부역 연결도로	1,214	850	364	364				
		올림픽파크 진입로	77	54	23	11	12			
		지 원 시 설	계(6개소)	11,413					11,413	
선수촌(알펜시아)	6,385						6,385	조직위		
선수촌(코스탈)	1,780						1,780	LH공사		
중봉대체선수촌	98						98	조직위		
미디어촌(코스탈)	3,150						3,150	LH공사		
기존시설 2개소	[알펜시아 미디어촌, 코스탈 도핑컨트롤센터(KIST강릉본원)]									

자료 : 강원도 동계올림픽 추진본부

<표-3-2>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SOC 건설에 따른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1)

	생산파급효과(억원)	부가가치(억원)	고용효과(백명)
서울	15,664	7,990	61
인천	13,276	3,948	25
경기	46,958	18,154	87
대전	1,482	633	6
충북	3,741	1,228	9
충남	10,344	3,275	17
광주	1,066	407	5
전북	1,712	587	8
전남	15,129	4,601	23
대구	2,185	816	10
경북	15,585	4,465	22
부산	4,763	1,635	15
울산	12,607	4,745	12
경남	7,895	2,294	17
강원	124,616	55,536	1,639
제주	246	118	2
총계	277,269	110,430	1,958

강원도의 산업별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는 건설업에서 93,749억 원(전체의 75.2%), 다음으로 비금속광물 제품업 8,504억 원(6.8%) 등의 순이다. 부가가치의 경우 전체 부가가치 55,536억 원 가운데 76.9%인 42,704억 원이 역시 건설업에서 나타나고 다음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에서 3,293억 원(5.9%)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고용효과는 건설에서 95,100개의 일자리와 도소매업 10,500개, 운수 및 보관업 9,700개 등 총 163,900개의 일자리를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산업구조를 전제하고 분석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대부분 지역의 건설분야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에의 투자가 지역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 강원도 및 개최지역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루는 개최도시와 강원도는 건설업 투자가 아닌 첨단 제조업과 연결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자본적 투자와 이러한 기술이 지역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3-3> 동계올림픽 SOC 건설에 따른 강원도 산업별 파급효과

산업별 고용	생산파급효과(억원)	부가가치(억원)	고용효과(백명)
1. 농림수산물	344	210	57
2. 광산물	2,462	1,405	65
3. 음식료품	234	107	3
4. 섬유 및 가죽제품	35	8	2
5. 목재 및 종이제품	414	95	12
6. 인쇄, 출판 및 복제	25	12	1
7. 석유 및 석탄제품	185	-1	1
8. 화학제품	457	147	7
9. 비금속광물제품	8,504	2,352	53
10. 제1차 금속제품	1,341	257	3
11. 금속제품	635	163	15
12. 일반기계	606	179	9
13. 전기 및 전자기기	1,083	252	15
14. 정밀기기	177	37	2
15. 수송 장비	298	74	4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96	31	4
17. 전력, 가스 및 수도	369	216	3
18. 건설	93,749	42,704	951
19. 도소매	1,155	695	105
20. 음식점 및 숙박	639	351	68
21. 운수 및 보관	2,442	1,214	97
22. 통신 및 방송	749	369	9
23. 금융 및 보험	1,517	818	43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4,575	3,293	71
25. 공공행정 및 국방	46	32	1
26. 교육 및 보건	353	240	15
27. 사회 및 기타 서비스	510	278	25
28. 기타	1,620	0	0
총계	124,616	55,536	1,639

2) 강원도 시군별 지역산업연관표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분석수단으로서 지역간 산업연관분석에 모델은 없는 실정이며 2009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전국 시도의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가 이 지역 간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일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연관표로는 강원도 내 시군 간 연관관계를 분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강원도의 18개 시군의 지역경제 특성이 반영된 다지역 투입산출표를 작성함으로써 시·군 간 산업연관구조를 분석하고 나아가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의 효과를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강원도 시군의 산업연계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근 정부가 여러 인접 시군을 묶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바, 실제 공동사업을 시행할 경우 경제적 측면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강원도 시군의 지역경제 특성을 반영한 다지역투입산출표를 작성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정책의 파급효과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을 구축이 가능하다.

표 3-4와 표 3-5는 경기장과 도로의 현재의 투자계획이며 지역별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철도, 도로사업의 투자금액은 지역별 노선의 길이(예로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을 고려하여 나누었다. (표 3-6)

<표-3-4>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경기장 SOC 건설투자

구분		신설 보완	연도별투자계획(억원)							
			재원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8 개소	합계	6,993	22	176	677	1333	2936	1849
			국비	5,245	0	76	559	999.5	2203.5	1407
			지방비	1,748	22	100	118	333.5	732.5	442
알파인	정선 중봉	신설	계	1,095	22	22	121	352	193	385
			국비	821	0	12	91	264	145	309
			지방비	274	22	10	30	88	48	76
봅슬레이	알펜 시아 리조트	신설	계	1,228	0	37	111	120	636	324
			국비	921	0	11	100	90	477	243
			지방비	307	0	26	11	30	159	81
프리 스타일 스노보드	보광 리조트	보완	계	205	0	0	0	10	132	63
			국비	154	0	0	0	7.5	99.5	47
			지방비	51	0	0	0	2.5	32.5	16
스피드 스케이팅	강릉 체육 시설 단지	신설	계	1,311	0	39	145	293	563	271
			국비	984	0	17	121	220	422	204
			지방비	327	0	22	24	73	141	67
계			1,361	0	33	116	263	604	345	
국비			1,021	0	14	97	197	453	260	
지방비			340	0	19	19	66	151	85	
아이스 하키1			계	1,079	0	25	100	204	476	274
			국비	809	0	12	82	153	357	205
			지방비	270	0	13	18	51	119	69
아이스 하키2	관동 대학교	신설	계	621	0	20	84	86	274	157
			국비	465	0	10	68	64	206	117
			지방비	156	0	10	16	22	68	40
컬링	강릉 빙상장	보완	계	93	0	0	0	5	58	30
			국비	70	0	0	0	4	44	22
			지방비	23	0	0	0	1	14	8

<표-3-5>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도로 건설투자

구분		사업명 (구간)	연도별 투자계획(억원)						
			재원별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경기장 진입 교통망	계	9개소	합계	3,552	44	525	470	1,662	851
			국비	2,486	—	402	329	1,163	592
			지방비	1,066	44	123	141	499	259
	지방도	지방도 456호	계	330	—	124	54	130	22
			국비	231	—	90	38	91	12
			지방비	99	—	34	16	39	10
		지방도 408호	계	562	12	104	77	234	135
			국비	393	—	81	54	164	94
			지방비	169	12	23	23	70	41
	군도 (지방비 중 평창 50%)	군도 12호	계	235	7	67	—	111	50
			국비	165	—	52	—	78	35
			지방비	70	7	15	—	33	15
		군도 13호	계	519	7	69	119	221	103
			국비	363	—	53	83	155	72
			지방비	156	7	16	36	66	31
	농어촌 도로 (지방비 중 평창 50%)	도암 205호	계	335	2	26	68	153	86
			국비	234	—	20	48	107	59
			지방비	101	2	6	20	46	27
		도암 209호	계	152	3	25	34	62	28
			국비	106	—	20	24	43	19
			지방비	46	3	5	10	19	9
	내부 연결 도로	용평 진입 도로	계	128	3	30	10	55	30
			국비	90	—	23	7	39	21
			지방비	38	3	7	3	16	9
		진부역 진입도로	계	1,214	10	80	89	658	377
			국비	850	—	63	62	459	266
			지방비	364	10	17	27	199	111
		올림픽 파크 진입도로 (지방비 중 강릉 50%)	계	77	—	—	19	38	20
			국비	54	—	—	13	27	14
			지방비	23	—	—	6	11	6

<표-3-6> 지역별 투자액 추정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비(억원)									
		계	지역별 투자								
			강릉	평창	정선	양양	원주	횡성	홍천	인제	수도권
	합 계(3개분야 40개소)	110,430									
경 기 장 건 설	계(13개소)	6,993									
	중봉 알파인	1,095			1,095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1,228		1,228							
	스노보드	205		205							
	스피드스케이팅	1,311	1,311								
	피겨/쇼트트랙	1,361	1,361								
	아이스하키 I (남)	1,079	1,079								
	아이스하키 II (여)	620	620								
	컬 링	94	94								
	소 계		4,465	1,433	1,095	0	0	0	0	0	0
접 근 도 로 망 확 충	계(21개소)	92,024									
	소 계	81,619									
	광역 간선 교통 (6)										
	양양국제공항	7				7					
	원주~강릉복선철도	38,962	7,403	15,585			8,961	7,013			
	경의선~공항철도	3,100									3,100
	영동고속도로 임시IC	312		312							
	동홍천~양양고속도로	23,841				7,947			7,947	7,947	
	제2영동고속도로	15,397					1,540				13,857
	보조 간선 (6)										
	소 계	6,853									
	국도6호선(4개소)	5,203		5,203							
	국도59호선(2개소)	1,650		1,650							
	경기장 진 입 도 로 (9)										
	소 계	3,552									
	지방도 456호	330		330							
	지방도 408호	562		562							
	군도 12호	235		235							
	군도 13호	519		519							
	농어촌 205호	335		335							
	농어촌 209호	152		152							
	용평 알파인 진입로	128		128							
	진부역 연결도로	1,214		1,214							
	올림픽파크 진입로	77		77							
	소 계		7,403	26,302	0	7,954	10,501	7,013	7,947	7,947	16,957
	계(6개소)	11,413									
지 원 시 설	선수촌(알펜시아)	6,385		6,385							
	선수촌(코스탈)	1,780	1,780								
	중봉대체선수촌	98			98						
	미디어촌(코스탈)	3,150	3,150								
			4,930	6,385	98	0	0	0	0	0	0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307,501억 원으로 2005년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우(277,269억 원)보다 30,232억 원 더 발생하고, 이 중 강원도는 146,050억 원으로 21,434억 원 더 발생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강원도에서 57,670억 원(2005년 기준 55,536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효과는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199,600명 생겨나고 이 가운데 강원도에서 148,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3-7>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SOC 건설에 따른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2)

	생산파급효과(억원)	부가가치(억원)	고용효과(백명)
수도권	105,941	37,164	376
강원도	146,050	57,670	1,488
충청남도	14,286	4,152	33
대전광역시	1,984	759	9
충청북도	8,106	2,334	21
호남권	4,980	1,342	11
대경권	14,127	3,503	33
동남권	12,028	3,453	25
전국(계)	307,501	110,376	1,996

동계올림픽 관련 SOC 건설에 따른 시군별 경제적 파급효과는 평창, 강릉, 원주, 양양, 홍천, 인제 등의 순으로 경기장과 철도, 고속도로 건설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동해시의 경우는 경기장, 도로 등 SOC건설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타 시군에 비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철원, 화천, 양구, 고성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파급효과가 있다.

<표-3-7>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SOC 건설에 따른 시군별 경제적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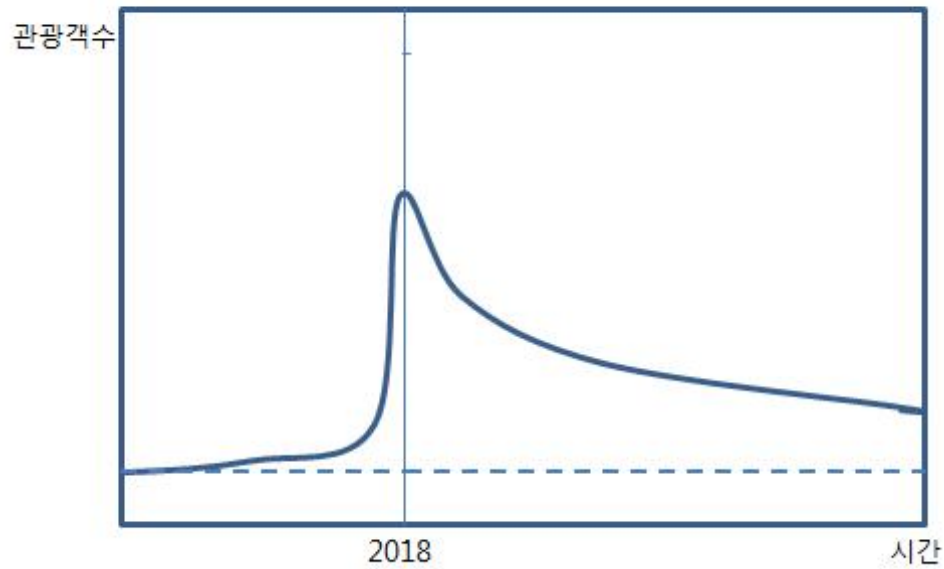
강원도	생산파급효과(억원)	부가가치(억원)	고용효과(백명)
ㄱ	1,019	391	6
원주시	15,990	6,154	155
강릉시	30,966	11,742	308/
동해시	7,701	4,358	21
ㄴ	980	293	8
ㄷ시	1,653	548	14
ㄹ시	1,822	571	12
홍천군	9,806	3,802	109
횡성군	8,458	3,155	65
ㅁ	1,885	573	8
평창군	43,152	17,389	457
정선군	2,141	750	13
ㅂ	70	32	0
ㅅ	56	23	1
ㅇ	148	47	5
인제군	9,754	3,854	174
ㅈ	491	152	5
양양군	9,957	3,837	129
총계	307,501	57,670	1,488

4. 결론: 지속가능 이니셔티브와 경제성장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는 첫째, SOC 투자에 따른 건설부문 파급효과, 둘째 관광객 증가 효과, 셋째 도로, 철도 증설 등 SOC확충에 따른 물류비감소 → 기업이전, 신설 → 산업구조개선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건설부문 파급효과는 일시적이고 그 자체로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결국 관광객 증가, 기업투자 등 지속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세계에 알려져 장기간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밴쿠버, 런던 등 이미 잘 알려진 도시들과는 다르게 평창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지역으로서 동계올림픽은 지역 관광객 방문추이를 향후 수십 년 동안 좌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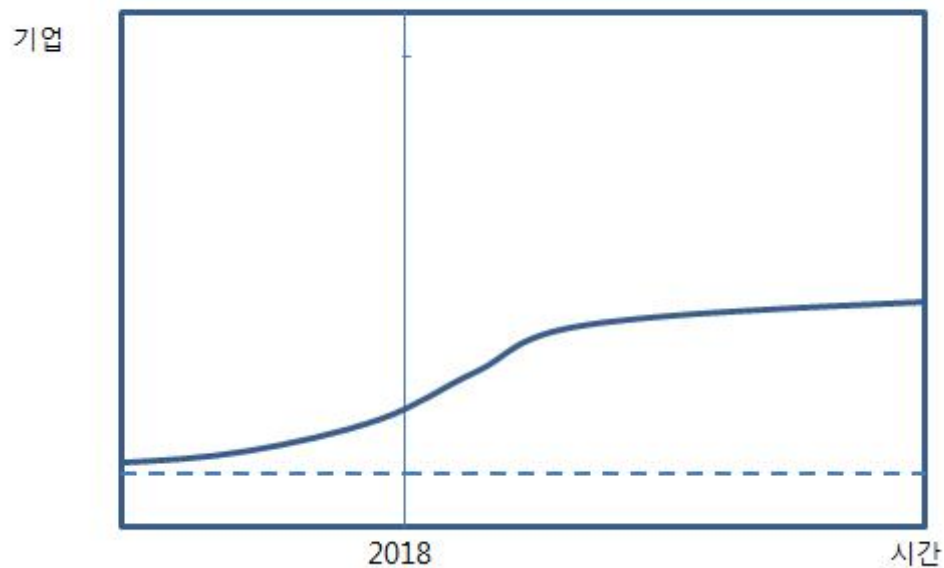
관광객 증가효과



<그림 3-1 동계올림픽과 관광객>

기업유치, 창업 등 기업투자는 올림픽을 전후하여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기대하기 어려우나 철도, 도로의 건설로 타 지역 대비 물류비용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기회이다. 가능하다면 지속적이고 강원도 전체에 편만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유치 전략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유치, 창업



<그림 3-2 동계올림픽과 기업투자>